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44 1983년 1월 3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Monday, January 31, 1983

FEB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Street
TORONTO, CANADA M5S 1A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82년도 한인회 최종이사회

이사선임 이사5명 선출

수지결산서 심의통과… 잉여금 $3,346

토론토 한인회 이사회(이사장 함병섭)의 제5차 정기회의가 이사 30명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하오7시부터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82년도 최종 이사회인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보고, 박인순회장의 집행부 일반업무보고와 결산보고및 신임 장순채 회장이 제출한 8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83년도 이사 선임위원의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미인대회 주최에 관한 것이 토의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9월30일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사선임자격 이사 5명을 선발하기 위한 투표결과, 이영현·강공선·박인순·이영묵·박광철씨가 선출되었다.

이들 5명의 신임이사선출자격 이사는 회장단 3명과 이사장단 3명과 함께 총 11명이 새로운 이사를 뽑게된다. 과거에는 회장단 3명과 이사장단 3명등 6명만이 이사선출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 이사선임단 11명은 현재의 이사정원 30명을 2배로 증원하자는 회칙개정안이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60명의 이사를 뽑게된다.

지난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수를 2배로 증원하기로 가결한 것은 한인회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사회비를 많이 확보해 한인회 재정을 돕자는등의 이유때문이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는 문인식 이사의 제청으로 한인회의 유일한 유급직원인 오정숙 간사의 급료를 현재보다 6% 인상, 년 648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 인상액은 예비비 3,000달러에서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제출된 82년도의 한인회 결산서에 의하면 총수입 $33,582에 총지출 $30,236로 $3,346의 수입잉여금을 냈다.

이 결산서와 함께 82년도 12월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자산 $13,871)도 제출되었으나 81년도의 대차대조표는 "시간관계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에 생략하고 총회(29일)에 제출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한인회 회계감사를 맡은 현영일공인회계사(C.A.)는 28일 "박인순 회장이 취임한 81년8월1일 이후의 결산서는 감사가 가능하나 그 이전 전임회장(강우석씨) 임기시의 회계는 감사가 불가능하며 증거자료조차 신빙성이 없다. 그 이전의 회계보고는 다만 추측알(guessing game)뿐 이다"고 말했다.

미인대회 토론토한국일보에 이양

금년부터 한인회는 후원단체로

토론토 한인회 주최하에 캐라반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토론토한국일보가 단독후원해오던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금년부터는 한국일보가 단독 주최하고 한인회가 후원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같은 결정은 27일 저녁 7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열렸던 제5차 한인회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이사 19명의 절대다수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참석자중 1명은 종전방식대로 계속 한인회가 주최할 것을 원했으며 2명은 궁극적으로 미인대회를 한국일보사에 이양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금년에는 한국일보와 한인회가 공동주최하자는 안을 내었다.

이날 이사회는 금년부터 미인대회 주최권을 한국일보사에 이양하는 대신 당선된 진·선·미 3명의 미녀를 캐라반행사에 내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한인회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토론토한국일보사는 4월중순경에 83년도 미스코리아대회를 개최하기로 기본방침을 세웠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를 위한 범교민적 위원회를 구성, 개최일자및 장소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최고상인 진은 5월 본국에서 열리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캐나다 교민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갖게된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매년 서울 한국일보본사 주최로 개최되며 해외에서도 소수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지역별 미인대회는 한국일보 지사가 주최·주관하고 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지난해까지 단독후원자로서 광고를 전액 무료로 제공, 후보접수, 인터뷰등 미인대회에 관한 일체의 홍보를 맡아왔으며, 출전 미녀들의 신청접수처 역할을 했었다.

캐나다 미인대회는 당초에 토론토 한인연합교회가 주최하다가 한인회에 인계된 것이다.

◆27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제5회 정기 이사회 광경. 83년도 한인회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신임 장순채 한인회장(서있는 사람)과 그 왼쪽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이대환 부이사장과 그왼쪽이 함병섭 이사장, 최복기 부이사장의 얼굴이 보인다.

이외무·워커 회담

슐츠국무 방한논의

(서울28일=연합)이범석 외무부장관과 리차드·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오는 2월6일부터 8일까지 있을 슐츠 미국무장관의 방한에 따른 현안문제를 약 20분간 의논하였다.

두사람의 회견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슐츠장관은 일본과 중공도 아울러 방문할 예정이다.

◁금주의 행사▷

– 1983년 1월31일(월)~2월6일(일) –

◆2월3일(목) 하오6시30분
한인컴퓨터협회 세미나
곳: 온타리오 교육회관(252 Bloor St, W. Tor.)
연락처: 669-5232

◆5일(토) 하오5시 제6대 동우회장선거 등록마감
곳: 290 Eglinton Ave, W. Tor,
연락처: 677-6506(강수완)

◆5일(토) 하오8시 이대동창 음악회
곳: St.Lawrence Center(Town Hall)
(27 Front St, E, Tor.)
연락처: 275-1029(이주연)

◆5일(토) 상오9시 제5회 Y 스키강습
곳: Snow Valley 스키장
연락처: 536-1166(김창열)

◆5일(토) 상오8시 교회학교교사 연합수련회
곳: 새한장로교회(105 Wilson Ave, Tor.)
연락처: 630-4902(이용출)

◆5일(토) 하오6시「장학의 밤」
곳: Downtown Holiday In(89 Chestnut St, Tor.)
연락처: 533-7923

함병춘 수석보좌

아프리카 순방

(서울28일=연합)대통령 수석보좌관 함병춘씨가 28일 대통령 특사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고 이날 외무부가 발표했다.

한국일보
토론토
〈주간 한국〉
오늘부터
발행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社 說

캐나다에 대한 기여

——당뇨병 모금운동에 즈음해서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가 당뇨병 환자를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했다는 소식(※토론토 한국일보 1월27일자)은 교민사회가 콤뮤니티만의 테두리를 벗어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캐나다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섰다는 의미에서 획기적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실협이 한인사회의 대표적 단체중 하나라는 점에서 실협의 시도는 다른 한인단체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운동으로 얼마가 모금될지는 모르지만 캐나다사회에 한인들의 이미지를 좋게 줄 것만은 사실인 것도 또한 이유이다.

한인라이온스클럽은 소속 국제클럽이 금년을「당뇨병 연구및 예방의 해」로 정하자 실협과 함께 캐나다당뇨병협회에 먼저 접촉, 이번 일을 마련했다.

비영리 자선단체로 30년의 역사를 가진 당뇨병협회는 금주부터 실협회원 상점에 모금함을 2개씩 우송한다.

스토어서는 모금함을 카운터에 놓아 손님들이 잔돈을 넣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면서 캐나다의 1백만명 환자에게 도움주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이밖에 약 50만명의 잠재적 환자가 있어 협회측은 인구 20명당 1명이 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한다고 밝혔다. 더우기 18개월짜리 갓난아기서부터 틴·에이저까지 자녀 6백명당 1명이 이 병에 걸려 평생을 인슈린 치료를 받으면서 병과 함께 살아간다.

금년 모금목표를 50만달러로 잡은 당뇨협회는 한인상점에서의 모금액등으로 어린이를 위한 여름 당뇨캠프를 운영한다. 온타리오 헌츠빌에 있는 캠프·휴론다(Camp Huronda)는 매년 당뇨병 어린이 350명씩을 2주간씩 이 캠프에서 지내게 한다.

당뇨협회측은 과거의 예를 보아 모금함 1개당 12~13달러가 걷히므로 이번 실협 회원들의 협조에 따라 18,000달러 정도의 액수를 기대했다.

수년전 일부 한인들은 봉사정신을 이 사회에 드러내기 위해 토론토시내 공원 청소를 나간 일이 있었다.(의도와는 달리 청소원노조와의 사전협의가 없어 중단함.) 또 일부 교회서는 양로원을 찾아가 위로의 오락을 선사한다. 이밖에 대소 여러단체 또는 개인이 조금씩이나마 캐나다 사회에 대한 기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이번 실협의 운동은 거북이걸음이더라도 "어글리·코리안", "코리안·쥬이쉬"등 불명예스런 인상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자선사업 기부액은 과세대상 소득액의 20%까지가 그 해의 세금대상에서 공제된다. 그 이상의 기부액은 다음해로 이월, 다음해 과세소득서 제외된다. 한 회계사는 "만일 연 10만달러의 소득자가 1만달러를 자선에 썼다면 그중 약 5천달러는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다."라고 간단히 계산했다.

모금액의 다과는 2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금에 참여하는 실협회원의 협조가 요망된다. 또한 "돈내는데는 항상 뒷전에 처진다"라는 비난을 점차 받는 프로페셔널 직업그룹, 지성인 그룹도 교민사회를 위한 것이든 캐나다사회 일반에 대한 것이든 각종 모금에 솔선 모범을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은하 보석
대리점
란콤화장품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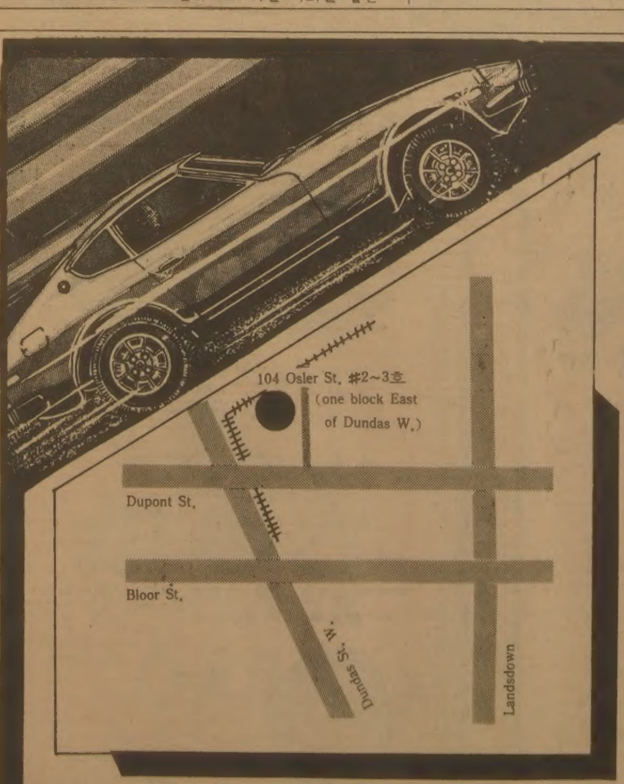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7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E.J. AUTO BODY
확장이전

새해에도 교민여러분께 만복이 같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Lisbon 오토바디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금번 제가 새로 확장이전해서 E.J. Auto Body shop를 open하게 되었읍니다.
과거와 같이 배전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영 두 올림.

ㅁ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ㅁ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ㅁ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ㅁ수리중 New Car를 무료대여.

(B)766-3122
104 Osler St. #2-3호 (R)439-6548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거리 심문제도 채택

메트로경찰, "범죄 줄이기 위해"

메트로·토론토 경찰은 "경찰과 시민과의 유대를 보다 긴밀히 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는 구실아래 거리에서 시민들을 붙잡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채택했다.

27일밤 메트로 경찰커미셔너위원회에서 채택된 이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경우 경찰관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잭·아크로이드 메트로시경국장이 밝혔다.

새 거리심문제도는 2년간 시험적으로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경찰관들은 시민심문법을 훈련받게 된다.

경찰활동에 관한 시민독자검토회는 이 거리심문제도로 말미암아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 모임의 잭·게멜회장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은 "영스트릿을 걸어가는 흑인이나 펑크족들을 마구잡이로 심문하게 될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캐나다통계국 경제분석서 밝혀

"경기침체 끝 증거많다"

(오타와)경기침체가 끝나간다는 증거가 커지고 있다고 27일 캐나다 통계국이 밝혔다.

캐나다 통계국은 그러나 경기회복이 금방 이루어질 것인지 수개월 뒤에 올것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이날 월별 경제분석에서 밝혔다.

81년 중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이후 캐나다 통계국의 가장 긍정적인 이 분석보고는 지난 10월의 주요 경제지수가 16개월만에 처음으로 상승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는 또한 지난 11월중에는 소매판매량이 증가됐고 12월에는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고용이 증대됐으며 고용증대는 주로 소매업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건설이 83년도 1·4분기들어 증가되고 착공건수는 지난 10월로 3개월째 계속 늘었음이 이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우편 이혼가능 검토중

연방·「온」주정부, 시간·돈 절약위해

온타리오 법무부의 더글라스·에와트씨는 우편이혼을 허가할 경우 연방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혹은 온타리오 최고법원의 법만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하고 영국의 제도를 보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카플의 비용이 10~20% 절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정부는 법정에 나서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법정에 나서지 않고 우편으로만 이혼수속이 해결될 경우 서로 싸우지 않고 합의되는 커플들에 시간과 돈을 절약해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에서는 우편이혼이 가능하다.

캐나다 연방법에 따르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이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27일 연방 법무성의 프랑소아·크레치엥 상담역이 밝혔다.

"최악 불경기 끝났다"

리건재무··경제지수 계속 증가

(워싱턴-UPI)도널드·리건 재무장관은 26일 최악의 불경기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리건장관은 이날 양원합동 경제분과위원회에서 증언, 자신은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지적한 경제회복의 징조는 다음과 같다.

▲주요 경제지수가 지난 8개월중 7개월간 계속 증가했다.

▲주택경기가 급격히 호조되고 있다.

▲업계의 재고가 생산을 증가할 정도로 정리되고 있다.

▲자동차판매를 비롯 각종 물품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西紀 2천년대에 한국, 핵무기保有

(세인트루이스, 미주리-UPI) 한국은 서기2천년대까지 일본, 서독, 이스라엘 대만등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것이라고 미국의 한공군비밀연구서가 밝혔다.

大學 풋볼의 보배

브라이언트 死亡

코치생활 통산전적 3백23승 기록

(투스칼루사, 알라바마) 대학풋볼사상 최고의 전적을 남기고 지난 12월에 은퇴했던 전알라바마대 풋볼코치 폴·베어·브라이언트가 26일 상오 10시30분 드루이드시티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69세.

브라이언트는 흉부의 통증 때문에 25일 병원에 입원한 후 양호한 상태였는데 26일 X레이 촬영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코치로서의 생애 통산전적 3백23승85패17무승부라는 신화적인 기록을 남긴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12월 14일 은퇴한후 알라바마대 체육감독으로 남아 일해왔다.

◆향년 69세로 사망한 브라이언트.

신문 편집인협회 새 회장에 이우세씨

(서울28일=연합)신문편집인협회는 28일 서울신문의 편집국장인 이우세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연합통신사의 편집국장인 송용식씨, 중앙일보의 신상기씨, 대구매일신문의 안덕환씨가 각각 선출되었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金聖鍾 작

지성과 공포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이상한 女人 ④

<159>

정체불명의 女人과 文子는 경회루서…

그녀가 경복궁에 닿은것은 12시 10분전 이었다. 경복궁 안에는 눈이 하얗게 깔려있었다. 몇쌍의 남녀가 눈을 밟으며 거닐고 있을뿐 고궁은 한산 하기 짝이 없었다.

문자는 경회루쪽으로 걸어가면서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기를 미행하고 있거나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경회루 입구에 닿은 그녀는 손목시계부터 들여다보았다. 약속시간 5분전이었다. 그녀는 코트깃을 세우고 어깨를 움크렸다. 초조 하고 불안한 나머지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발을동동 구르며 주위로 불안한 눈길을 던졌다.

멀리 떨어진 나무 사이로 남자의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감시 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조금 있자 남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다름 아닌 오빠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몸을 돌렸다. 그러자 한 여자가 종종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저여자야!

문자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여자는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경회루쪽으로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잿빛 코트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아주 좋은 여자였다. 입술 연지가 유난히도 붉어보였다.

문자는 휙 돌아섰다. 그리고 얼어붙은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발소리가 다가오다가 그녀의 등 뒤에서 딱 멎었다.

朴男 그림

『나와주셨군요.』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이라도 녹일 것 같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들은 한참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상대방이 대단한 미모의 여인임을 문자는 알아볼수 있었다. 피부도 고왔고 차림새나 매너가 세련되어있었다. 나이는 아직 서른 정도도 안된성 싶었다.

『당신이 전화를 건 장본인이에요?』

『그래요.』

상대는 여유있게 끄덕였다.

『그런 실례되는 전화를 하다니!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그건 알 필요없어요.』

정체불명의 여인은 백을 열더니 담배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담배를 한대 권했다.

『피우시겠어요?』

『싫어요.』

문자는 차갑게 거절했다.

선글라스의 여인은 담배에 불을 당긴후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후우하고 내뿜었다.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없어요. 다 알고있는 것을 부인해봤자 입만 아프니까요. 그리고 시간 낭비니까요.』

『나쁜 년!』

문자의 오른손이 휙 날았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③

위법지적으로 미움받아 의원선거서도 낙선공작

박대통령과 나

나를 납치한 사건을 계획하고, 직접 지령한 박정희 대통령은 본래 나에게 대해 비상한 라이벌의식에 사로잡혀, 그것이 점차 미움으로 굳어진 것같다. 그와의 대결이 숙명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여당입당을 거절

1961년5월13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는 강원도(인제)에서 염원이던 「선량」으로 첫당선했다. 나는 이틀후인 16일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5월16일 새벽 박정희씨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나는 혁명에 참가한 군인들 사이를 누비듯이 하며 서울로 왔다.

국회는 18일 해산되어 모처럼 차지한 나의 국회의석은 허탕이 되고 말았다.

혁명 주체들이 새로운 여당(민주공화당)을 조직할때 나도 포섭대상이 되었다. 서울시내 반도호텔로 불리어가 중앙정보부(KCIA) 제6국장으로부터 "당신이 입당을 수락하면 김종필씨(박정희씨의 조카사위로 군사혁명 주역, 초대 중앙정보부장)가 만나주기로 되어 있다"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한 마디로 거절해 버렸다.

63년2월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나는 재건된 야당 신민당 대변인이 되었다. 당시 박정희씨는 군사정권의 최고법규였던 「국가재건법」과는 달리 군인 신분 그대로 민주공화당에 입당했다. 내가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의 입당은 무효가 되고, 국가재건법 자체를 개정하게 되었다.

박씨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라고 생각된다.

정부를 신랄히 공격

나는 박정권의 비민주적 수법을 날카롭게 공격했다. 단순히 공격할뿐 아니라,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에 박씨는 난처해졌다.

65년 한일조약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국무총리와 외무장관은 나에게 공박을 받아 답변에 궁해졌다. 박대통령은 그들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와 여당에는 김대중과 맞설만한 자가 한명도 없단 말이냐?"하고 화를 냈다.

67년 내가 고향 목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박대통령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김대중만은 낙선시키라고 지시했으나 목포시는 「혁명전야」라고 말할 정도로 나에 대한 지지열기에 차있었다.

김형욱 중정부장이 "만약 그를 떨어뜨리면 목포는 피바다가 될 위험이 있읍니다. 그래도 좋습니까?"하고 권고, 박대통령은 나를 낙선시키는 공작을 단념했다한다.

단 한번의 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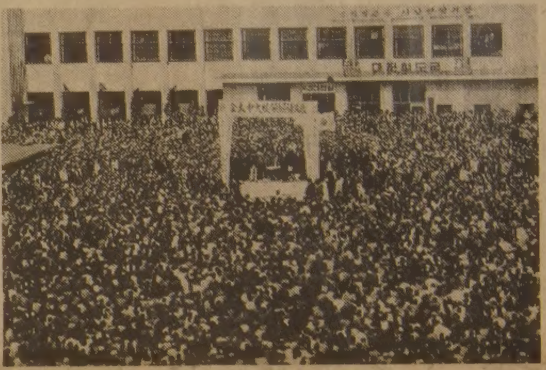
나는 꼭 한번 박정희씨와 만난 일이 있다.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신년에 대통령에게 연하인사하러 가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나도 68년 정월에 청와대로 향했다.

그랬더니 박대통령은 뒤를 잇는 연하객들을 두고 나를 친절히 맞아 별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도 "부부 동반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걸."하고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다.

이때 나는 대통령이 67년 국회의원 선거때 여당PR을 위해 일부러 목포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목포의 개발사업을 약속했던 것을 화제로 꺼냈다. 내가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앞으로 합시다."하고 대답했다.

그와의 대담은 5, 6분, 박씨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때 뿐이었다. (계 속)



◆대통령 선거때인 71년4월3일, 대전역전에서 열린 김대중씨의 선거유세. 그의 유세장에는 언제나 많은 군중이 모였다.

〈현대적 속담풀이〉 ⑧

오 강 남 박사(종교학)

늙으면 아이된다

—경로사상의 근거—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에 속한다. 건국 100주년이 조금 지나고, 헌법을 영국에서 옮겨온 것이 엊그제인데, 가장 늙은 나라라면 자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늙었다는 뜻은 전체인구중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뜻이다.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평균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출산율이 현격하게 감소되는 통에 2,000년대에 가면 노인층이 전체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캐나다통계국의 추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례가 지금 어른 7명에 한명꼴인데, 서기 2030년을 절정기로 하여 어른 3명에 한명꼴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병전문가, 노인병원, 양로원 등 노인들과 관계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미 북미대학가에서는 노인학(gerontology)이라는 과목이 가장 인기있는 과목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토론토 한인사회에서도 순수한 동양적 경로사상에 덧붙여 이런 일반적 추세를 감안했음인지 양로원을 건립하겠다고 나선 단체가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말고도 몇개 되는 모양이다.

늙으면 아이 된다고 한다. 왜 그럴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빠진 이가 다시 나오고, 흰 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속담이 이런 생리학적 의미로 씌어진 것같지는 않다.

그러면 심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일까? 혹은 늙어지면 자연히 어릴 때의 기억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기분이 어린 아이같이 되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지기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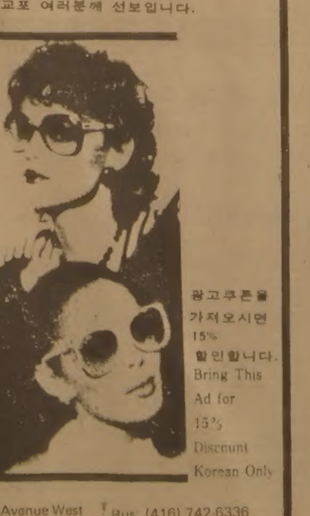
일리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순간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어른도 늙어지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좀 억지같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혼자서 살 수 없듯 늙은 이들도 혼자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이야기다.

아뭏든 어린이와 노인이 다 같이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나타나는 비극적 차이점은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랑과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에게서부터 고립되고 경원시된다고 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북미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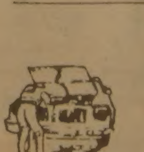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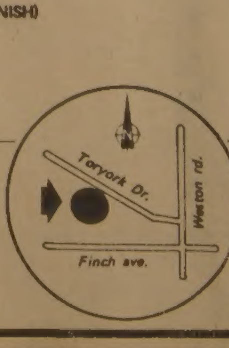
중국의 철학자 한 사람이 미국을 돌아보고 가서, "미국은 어린이들에게는 천국이요, 장년들에게는 전쟁터인데, 노인들에게는 무덤이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고양이나 데리고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딱한 사정, 그들에 대한 미국인들 일반의 무관심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실 늙은이들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길래 「십계명」에도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항은 특별히 삽입해 놓았던 것 아닐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강조하지 않아도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없이는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늙으면 아이된다.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그들을 보살핌이 우리의 임무임을 일깨워주는 말같이 들린다.

Camelot Creations
(Div. of Sunglass Promotions Inc.)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5125 Steeles Avenue West
Weston, Ontario
M9L 1R5
Bus. (416) 742-6336
742-6339
RAVI RAWANA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현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 외 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자동차 갖고싶어 간첩행위"

영국정보사병 덜미잡혀

(런던)영국육군정보부대 소속 1등병이 런던주재 소련대사관에 군사기밀 정보를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 이유가 스파이에의 호기심과 자동차를 사려는 자금욕 때문이라고.

런던의 중앙형사재판소는 지난 18일, 범인 올도릿지 일등병(20)에게 4년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올도릿지 1병은 81년7월, 고등학교 졸업후 육군에 입대, 작년 5월부터 군정보를 취급하는 정보부대에 배속되어 기밀서류에 접촉하게 되었다. 간첩에의 호기심에 사로 잡힌 그는 작년 8월 런던의 소련대사관에 편지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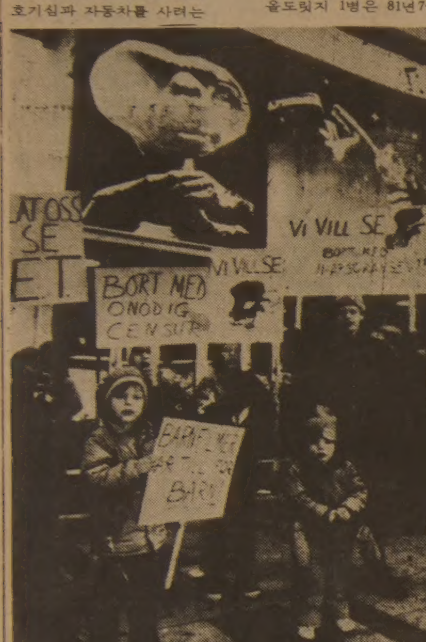
"만약 정보를 원하면 9월 4일자 〈데일리 텔레그래프〉지 광고란에 「스파이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모친으로부터」라는 암호를 게재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것이 농담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일부러 기밀서류 사본의 1부를 동봉했다.

과연 9월4일자의 지정된 신문에 소련대사관의 암호가 나왔다.

올도릿지 일병은 9월13일, 프랑스제 미사일 「엑조세」에 관한 기밀문서등 정보를 500파운드에 팔려고 런던시내에서 소련대사관원과 접촉했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얼굴사진을 찍으려 하자, 덜컥 겁이 난 올도릿지는 울더쇼트에 있는 부대로 도망쳐 돌아왔다고 한다.

상관이 올도릿지의 일기책에 소련대사관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 결국 그는 체포되었다.

재판장이 "자동차가 탐나서 국민을 배반, 국가기밀을 팔려한 죄는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말하자, 한창시절 기타의 대중음악연주가 능란한 이 장발청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스웨덴당국이 11세이하 어린이들에게 영화 E.T.의 관람을 금지시키자 어린이들이 극장앞에 모여 항의데모를 벌이고있다. 〈스톡홀름-AP〉

미 불법이민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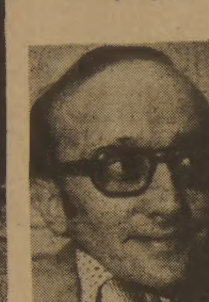
작년도에 53% 늘어

미국과 멕시코국경지대에서 올해 1월초부터 16일까지 체포된 불법외국인들 수는 4만1천7백88명으로 지난해보다 53.4%가 증가해 이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1년동안 체포되는 수가 사상두번째로 1백만명을 넘어설것이라고 인민귀화국(INS)컴미셔너 앨런·넬슨이 밝혔다.

멕시코의 경제악화, 페소화평가절하등으로 국경을 넘어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이 늘고있는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국경순찰대가 새로 장비한 장거리적외선 정찰장치가 적발단속효과를 높이고있다고 알려졌다.

1월1일부터 16일까지 1만8천 9백명의 밀입국자수가 체포되어 74%의 최고증가율을 보인 캘리포녀의 출라·비스타지역에 60여명의 순찰대원을 증강배치하는등 단속을 강화할것이라고 넬슨은 말했다.

E.T.로 분한 난장이 마이클·빌롱씨 사망



◆ 유명한 E.T.의 걸음걸이를 만들어낸 난장이 빌롱씨. 그는 27일 사망했다.

(영스타운, 오하이오)영화 「E.T.」에서 E.T.로 분장한 실제 인물인 난장이 마이클·패트릭·빌롱(35)씨가 27일 폐염으로 인한 합병증세로 숨졌다.

키가 86cm인 빌롱씨는 E.T.에서 다른 두명의 난장이와 함께 몸무게보다 무거운 E.T.의 의상 속에 들어가 유명한 E.T.의 걸음걸이를 만들어냈었다.

E.T.제작이 끝나자 그는 E.T.의 의상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증기탕"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빌롱씨는 E.T.의 후편에도 출연키로 협상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E.T.는 사상최대의 관객동원 영화로 1억9천4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미 대학 영화학과 붐

코폴라, 루카스감독 성공이후

스타·워즈의 조지·루카스 감독이나 대부의 프란시스·코폴라 감독의 성공이 미국대학의 영화학과에 붐을 몰고 와 영화학과에는 지금 어느때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장래의 유명감독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헐리웃에서 명성을 얻기란 결코 쉽지않은 일.

스필버그는 66년 고교졸업후 UCLA에 원서를 냈으나 거절당했고, 그후 칼스테이트 롱비치에서 USC로 전학하려 했을때에도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USC로부터 거부당했었다.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필름스쿨을 졸업하지만 이들의 앞날이 보장된것은 절대 아니다.

아이로니칼한 것은 헐리웃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E.T.」의 감독 스티븐·스필버그가 왕년에 이 두대학으로부터 다 입학거절을 당했던 사실.

헐리웃 BC(Before Coppola)즉 코폴라감독이 출현하기전만 하더라도 감독후보자들은 대학캠퍼스를 드나드는대신 촬영장근처를 어슬렁거림으로써 영화계에 한발을 들여놓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 후보생들은 UCLA-USC(즉 캘리포니아대학과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영화학과의 프로그램을 놓고 장단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UCLA와 USC는 영화계에서도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UCLA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감독은 67년도 졸업생인 프랜시스·코폴라감독(43), 그외에 감독 폴·쉬라더(아메리칸 지골로), 콜린·히긴스(9 to 5), 캐롤·발라드(블랙스탤리온), 에이전트존·프타등이 있다.

USC의 리더는 66년도 졸업생인 조지·루카스, 그밖으로 감독 밀러스·클라이서와 랜달·클라이서(그리즈), 존·카펜터(할로윈), 존·하워드(해피·데이스)등이 있다.

▲UCLA와 USC로부터 거절당했던 스티븐·스필버그감독.

졸업후 敎師원하는 學生2%

20%이상이 비즈니스職 바라

"최근學生은 物質주의적"

UCLA조사 經濟부유가 人生목표

〈LA-AP〉오늘날의 대학신입생들은 격동기였던 60년대의 학생들보다 더 물질주의적이며 더 이타주의적성향을 띠고있다고 UCLA의 제17차연례전국대학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연구조사에 따르면 최근학생들의 주요인생목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의미있는 인생철학을 중요시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3백50개대학의 신입생 18만8천7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의 주요통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졸업후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이 5%미만으로서 이조사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0%이상의 학생이 졸업후에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대답하여 지난1966년의 11.6%에 비할때 대폭 증가했다.

▲거의 6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삶을 인생목표로 지적하여 1967년의 43.5%보다 더 물질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다.

▲뜻있는 인생철학 계발을 가장중요한 인생목적으로 지적한 학생들이 46.7%에 그쳐 지난1967년 83%에 비할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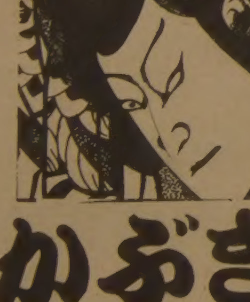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三國志 552 글·高羽榮·그림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는 여러분 곁에 있읍니다· 광고및 구독신청접수 ☎(416)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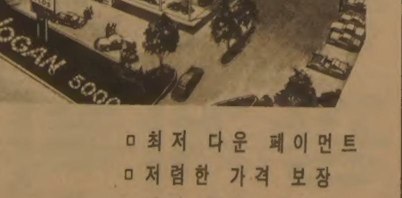


かぶき
ステーキハウス
새로이 스시바 오픈!
KABUKI
JAPANESE STEAKHOUSE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Just across the street from the Hotel
reservations accepted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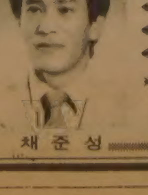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HOGAN GM
Chev Olds Limited
시보레·올스모빌



□최저 다운 페이먼트
□저렴한 가격 보장
□가장 좋은 조건으로
Finance 가능
○새차, 중고차, 트럭등 Leasing
○Trade-in
마이클 손
5000 Sheppard Ave. E., Scarborough, Ont. M1S 4L9 291-5054
(세파트×맥퀸)

부동산및사업체
매매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채준성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洛東江 상류댐 年內착공

農水産部 보고 87년까지 營農 완전機械化

번식소 올 8萬頭도입

농어촌後繼者 2천명 育成

◇全대통령이 새해 농수산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全斗煥대통령은 26일 朴鍾汶농수산부장으로부터 농수산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朴장관은 이날보고에서 영농기의 소형管井5만孔파기, 논물가두기로 충분한 용수를확보, 지력증진과 쌀, 보리증산에 주력하고 식생활개선과 식량절약운동을 병행시킴으로써 주곡자급을 앞당겨 실현하는 한편 농업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오는 87년까지 편야지의 영농을 완전기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새해에도 농업용수개발에 주력,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을 계속추진하면서 특히 무한상습지에대한 계획을 수정, 이지역의 水脈조사는 86년까지 5년, 용수원개발은 89년까지 각각 2년씩 앞당겨 끝내겠다고 보고했다.

이 계획에따라 새해에는 우선 4백50억원을들여 경북醴泉과 關慶지역의 가뭄해소를위해 낙동강상류 유역댐을착공하고 50억원을들여 저수지 지하수개발등으로 전남海南의 花源반도에 대한 근본적인 한해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해 새해에는 복합영농을 새마을농과 연계, 이미 선정된 2백25개 시범단지와 9백개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중점추진하고 축산기반강화에도 힘써 올해 젖소 1만마리를 포함, 모두 8만마리의 번식용 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이어 과학영농과 급의 기수가될 농어촌후계자의육성을 영속적으로 활성화하기위해 새해에는 대상인원을 2천명으로하고 자금지원도 1인당 7백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쌀값 오르지않도록 힘써야" 全대통령指示

全斗煥대통령은 26일 『농수산물은 물가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만큼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않도록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조절을 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一般米값의 상승방지에 최선을다하는 한편 중간도매상들의쌀값조작에 의한 暴利는 철저히 가려 세금으로환수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朴鍾汶 농수산부장관 金文憲농촌 진흥청장 金鍾洙 수산청장으로 부터 올해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뒤 이같이 지시하고 『물가에 민감한 반응을주는 농수산물에대해서는 정부가 값이쌀때 구입해 저장, 비축하는 기술개발과 시설완비를 연차적인계획을 세워 시행토록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정부각부처는 모든시책을 부처간 긴밀한협조를 통해 전시효과만 노리지말고 신중히 계획을 세워 시행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農·水·畜協소속의 모든 직원들은 관료적인 자세와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친절, 봉사하는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정부기구 統廢合문제에 언급, 『아직도 정부기구가운데는 통폐합하거나 조정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기에 대한 敬拜사상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복합營農은 무리하게 할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신에게 이익이돌아간다는점을 인식케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하라』고 지시하고 『草地조성 農外소득 養殖業등은 졸속을피해 관계당국과 농어민이 함께 시험해보고 확신이섰을때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각부처는 분야별로 낭비요소를찾아 더욱 예산절감을 위해노력하고▲앞으로 全天候농업이 될수 있도록 금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저수지, 지하수개발에 역점을 둘것▲營農기구의 국산화 비율을 더욱높이도록 하고▲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식생활개선 운동을 더욱 적극추진 할것▲모든부처는 제도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것▲老朽漁船代替계획을 당초 30척에서 1백척으로 대폭 확대하고 어선들의 越線방지를 철저히 할것▲농촌지도직원들과 수산기술자들에대해 정기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할것 등을 지시했다.

景氣회복 先進國들과 협력

레이건 年頭敎書 自由무역促進 계속노력

外交政策 동맹국들과 협의

【워싱턴=李文熙특파원】레이건 美대통령은 26일 상오 11시 (한국시간) 美上下양원 합동회의에서 올해의 연두교서를 발표, 미국과 세계경제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선진민주공업국들과 긴밀히 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98차 美의회개원과 때맞춰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중계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복지가 세계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만연추세에 맞서 보다 자유스런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겠다고선언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超黨派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가상적국들과의 건설적협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그의 행정부는 평화를 지키기위해 현실적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군사력도 점진적으로 증강시켜 나가고있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對蘇관계에 대해 『소련은 말과 함께 행동으로도 각국의 주권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 (IMF)이 세계경제를 강력하고도 非인플레적 성장으로 복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있도록 적절한 재원의 확보를 보장하기위해 IMF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주로 국내문제에 언급한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예산적자와 높은 실업률때문에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시인, 그러나 이제는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레이건대통령이 밝힌 對外정책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美蘇관계=작년 소련에는 지도자의 교체가 있었다. 우리는 美蘇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준비를 갖추고있다. 그러나 말뿐만이 아닌 소련의 실제행동이 미국의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軍縮문제=미국은 제네바회담의 소련측대표들이 내놓은 제안을 주의깊게 검토할 준비를 하고있다. 우리는 소련과의 군축협상을 활발하게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양측의 무기를 균등하고 입증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협정초안을 제시한바 있다.

◇美 上下양원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기위해 의사당에 도착한 레이건대통령이 부시부통령㊧과토머스·오닐하원의장㊨의 박수를 받으며 웃고있다. 【워싱턴25日AP電=聯合】

神父·修女 정치活動 금지

敎皇, 교회法 修正案 서명

【바티칸시티AP UPI=聯合】교황요한·바오로2세는 25일 신부들과 수녀들의 공직보유및 노동조합활동을 금지하고 다른 종교인들과의 결혼을 인정하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공산당내에서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교회법수정안에 서명했다.

교황은 이날 간단한 서명식을 통해 1천7백52조의 이 교회법이 예수강림절 첫날인 11월2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밀가루값 3.7% 引下

오늘부터…22kg 4천5백12원

정부는 물가안정시책의 일환으로 27일0시를기해 밀가루값을 22kg들이 1부대당공장도가격기준으로 평균 4천6백86원에서 4천5백12원으로 3.7%인하키로했다.

이에따라 보통밀가루의 경우 22kg들이부대당 공장도가격이▲1등품은 4천8백90원에서 4천7백10원으로 3.7%▲2등품은 4천4백원에서 4천2백40원으로 3.6%▲3등품은 3천9백80원에서 3천8백30원으로 3.8%가 각각 내리고 소비자가격은▲1등품이 5천3백90원에서 5천2백10원으로▲2등품은 4천9백원에서 4천7백40원으로▲3등품은 4천4백80원에서 4천3백30원으로 각각 3.3%씩 인하됐다.

밀가루 값의 평균 3.7%인하로 국내물가는 도매가 0.03%, 소비자가 0.006%의 인하요인이 생기게됐다고 농수산부는 밝혔다.

한편 국제원맥가격은 81년평균이 2백40.98달러 (C&F가격) 였으나 82년은 평균 1백82.05달러로 25%가량 내렸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9일 밀가루값을 공장도가격기준 평균 5.2% 내린바있다.

民韓, 地自制공동硏究 환영

民韓黨은 民正黨측이 地方自治制공동연구용의를 표명한데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李泰九부총재는 26일 民韓黨은 그동안 地自制의 早期실시를 계속주장해왔고 이미 代案이 마련돼 있으므로 民正黨측의 이같은 표명을 고무적인것으로 환영한다면서 『柳致松총재가 歸京하면 黨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李載灐대표의 공동연구 用意표명은 地自制의 실시를 전제로 연구하자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두黨의 대표들이 만나면 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民韓黨은 지난 81년11월 82명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및 釜山·大邱·仁川등 직할시와 각道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는 늦어도 83년12월31일 이전에 실시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법중 개정법안」과「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중 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는데현재내무위小委에계류중이다.

국민, 硏究特委제의

한편 국민당의 李萬燮부총재도 『地自制는 여야가 말로만 주고받을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말하고 『국민당은 4월임시국회에 地自制연구特委구성결의안을 제안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特委구성결의안을 내기전에 먼저 與野당직자들간에 접촉을갖고 원칙적인 문제는 합의를 보아야할것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한후 『지난번 총무회담 합의대로 오는6월까지는 이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李民正대표는 25일 『民韓黨이 오는4월 국회에서 地自制에 관한 구체적인 代案을제시하면 공동으로 검토할 용의가있다』고 밝힌바 있다.

銀行法시행령 改正案마련

同一기업에대한 貸出 은행資本50% 안넘게

정부는 금융기관의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기 위해 동일기업에 대한 대출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백분의50, 그리고 지급보증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백의 1백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을 억제하기위해 개정 銀行法에서 동일기업에대한 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 1백분의25, 지급보증은 1백분의 50을 초과할수없도록 제한하고 예외규정을두어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할수있도록 한바있는데 정부가 새로마련한 은행법시행령개정안은 은행법이 제한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 혹은 지급보증할수있는 경우를▲외화획득을 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사업▲국가기간산업▲생필품을생산하는 산업으로서 금융지원이 꼭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한해서만 초과여신을허용토록하고 이경우에라도 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 50%, 지급보증은 1백%를 넘을수없도록 다시 최고한도를규정했다.

그러나 외국은행지점의 여신, 정부전액출자법인에대한 여신, 우량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은 또다시 예외규정을 두어 무제한 한도초과를 할수있도록 했다.

533—2361

經協 實務者회의 내일 東京서개최

韓日양국간에 합의한 40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중 82년도분 ODA (공공개발차관) 교섭을위한 양국 실무자회의가 28, 29일 이틀간 東京에서 개최된다.

다나까에 5년求刑

東京地裁 수회·外換法위반 혐의

野黨선 의원직 辭退요구

【東京=宋孝彬특파원】東京지방재판소검찰부는 26일 록히드사건에 관련된 수회와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다나까前수상 (64) 에대해 5년징역및 추징금 5억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하오 4시25분 6년동안 끌어온 록히드관련 사실심리를 마치고 다나까피고에게 수회죄로서는 최고형량인 5년징역형을 구형했으며 마루베니社의 前사장 히야마 (檜山廣·73)에게는 징역4년, 다나까의 비서관에 노모또 (榎本敏夫·56)에게는 징역1년을, 마루베니社의 前전무 오꾸보 (大久保)와 이또 (伊藤弘·56) 양인에게는 2년6월의 징역을각각 구형했다.

이와함께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나까前수상에 대한 구형선고를 계기로 노조원2만명을 동원, 反金權정치, 反다나까를 외치며 시위에들어갔으며 27일부터 열리는 야당수들의 對정부질의에서 다나까金權정치에 대한 對與질문공세와 함께 다나까前수상의 의원직사퇴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다나까측은 오는5월11, 12일 최종변론을할예정인데 다나까前수상이 관련된 록히드재판1심판결은 오는 9월~10월에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社會漫評

열심히 공부하는者…
형식적으로 공부하는者…

地平線

다나까전일본수상에게 5년징역형이 어제 구형됐다. 다나까재판은 한개인의 뇌물수수혐의액이 5억엔 (2백20만달러) 이란 거액인것도 특이하지만 그 휘하에 1백여 의원을 거느린 일본정계 최대실권자에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상당한관심을 끌고있다. 구형에 앞서 약2만명의 시위군중이 그의 의원직 사퇴와 정치윤리확립을 요구한것도 이 때문인것 같다.▼6년이나 재판을끌어온 경과도 그재판의 중요성을말하거니와 그결과가 일본정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짐작할수있게 한다. 하나 판결이 과연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더 두고 보아야할 일이다. 수상 재직시 일본 국내 항공사에 미국 록히드항공사 제품인 트라이스타 여객기를 구입토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대가로 5억엔의 뇌물을 받았다는것이 그의 혐의내용 이다.▼다나까씨는 이 혐의로 당시 수상직을 물러났었다. 이와 사정은 좀 다르지만 닉슨 전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퇴임했고, 프랑스의 지스카르·대스탱 전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다이어먼드사건때문에 재선을못했다. 다만 다나까수상은 수상직을 물러나기는 했으나 그의인김이통하는 정치가들이 쟁쟁하고 본인자신도 현역의원자리에 그냥있으면서 막강한재력을가진 代父처럼 영향력을발휘해온것이 주목될만하다.▼12選관록의 그는 매일 그의 저택에서 3백명이나 손님을 만나고 향리에 돌아가면 지지자들이 아직 구름떼처럼 모인다한다. 金權政治, 汚職스캔들로 한쪽에선 여론이 들끓지만 한쪽에선 그의 인간적 매력에 추종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은 모양이다.▼뇌물 아닌 정치자금이라고하면 발을 뺄수도 있지 않나하는 추측까지 나도는 정도다.▼일본은 전후 세칭 昭和電工事件을 겪었다. 戰災復舊工事를 맡는 교제비로 8천5백만엔을 쓴 사실이 밝혀져 그때의 내각이 넘어지고 아시다 수상은 나중에 무죄로 판가름났으나 한때 체포까지 됐던일이 있다. 록히드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이탈리아·터키에선 공창총장이 물러났고 네덜란드선는 유리아나女王의 남편이 혐의를받아 한동안 곤혹을 겪는등 떠들썩했던 사건이다.▼하기야 뇌물액으론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경우도 있다. 한 삼십년전엔 석유이권문제로 중동의 산유국끼리 3천만파운드 (약 6천만달러) 를 뇌물로 주고받았다는 풍문이 있었다. 하여튼 듣기에 거북한 얘기들이다. 깨끗한정치, 돈안드는 정치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他山之石으로 보고 이땅엔 스캔들이 조금이라도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입맛 돋는
YAMASA
SOY SAUCE

83년도
신세계
단체관광계획

	성지순례	구라파관광
출 발	1983년5월6일(금)	1983년7월23일(토)
귀 환	5월19일(목)	8월 8 일(월)
기 간	14일	17일간
방문지	성지 7박8일 애급 2박3일 로마 3박4일	8개국 영국, 화란, 서독, 오지리, 이태리, 모나코, 스위스, 불란서, 이태리
요 금	$2,250(2인1실)	$1,960(2인1실)
신 청	1983년3월31일 전액불입	등록 : 1983년5월31일 $300불입 마감 : 6월25일 잔액지불
기 타	한국인 안내자 동반 교황알현 알선	한국인 안내자 동반

■상기요금은 토론토 기준이며 타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 - 7525

레이건 年頭敎書에 담긴 意味

稅金인상·국방비 節約등 기본 路線 후퇴

對蘇 軍縮기존입장에는 不變

聯邦지출·賃金동결등 국내외 영향예상

레이건 美대통령에게 1983년은 시험의 해이고 그 레이건 대통령에게 가장 당면 문제는 경제와 對蘇군축협상으로 돼있다。미국헌법에 따라 25일 하오 9시(미국시간)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레이건대통령의 새해 시정연설도 어김없이 이 두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엄격히말해 두번째 문제보다는 최악의 상태인 경제회복과 2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정부 재정적자의축소,더나아가 그가 취임이래 부르짖어온 미국의 재건을 호소하는 것이었다。그는 긴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면서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초당적 지지호소의 근거는 지금의 경제문제를 집권당만이 아닌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라는것과 그가 고집하던 정책기본 노선에서 약간의 타협을 가한 즉 세금의 증액고려,국방비의 가능한 범위의 삭감등이 자신의 제의속에 포함돼 있었다。

그의 경제회복과 재정적자감소를위한 조치는 다음 4개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계속되는 정부지출확대를 막기위해 연방지출의 금년수준으로의 동결이다。즉 민간및 군인의봉급과 각종 국내사업을위한 지출을 1년간 동결하고 3천6백만명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비를 6개월간 동결했으며 앞으로 연방지출증가는 인플레율의 범위내에서만 있게된다(선별적 동결조치에도 국방비만은 14% 증가하게 된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둘째 지출규제가 어려운 자동지급항목인 푸드·스탬프(극빈자에 지급하는 식품구매권)등에 특별조치를 마련,이를 규제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간 이에관한 지출의 증가가 적자요인의 중요 요소였으며 不正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못했었다고 말하고있다。

세째 그러면서 레이건대통령은 향후 5년간 국방비가운데서 5백50억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의 국방력이 약화되는 전략은 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제의는 그의 국방비 증액방침에서 일종의 타협으로풀이되고있다。

네째 1986 회계연도기준 부분적인 세금인상을 실시할수 있다。금년 6월 10%의 소득세인하를 비롯 세금삭감을 그의 정책기본으로 해왔던 레이건대통령으로서는 이 세금 인상이 국방비절약과함께 또다른 타협으로 풀이되고 있다。

레이건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세금인상제의를 하면서도 재정적자가 GNP의 25%를 넘고 의회가 자신의 연방지출동결을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실시하겠다고 단서를 붙이고있다。

레이건대통령은 그밖에도 고용증대,국제교역의확대방안과 여성·소수민족문제등 연두교서답게 각분야에 걸쳐 언급했지만 주목되는것은 두가지가 있다。즉 미국교육의 재건과 범죄에대한 철퇴를 가할것을 지적한 점이다。그는 이부분에서 일본의예를 두번이나 지칭하면서 교육재건을 위한 부수방안들을 열거했는데 관계자들은 이것이야말로 레이건이 취임이래강조해온 미국의재건을 가장 인상깊게 말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이런 국내문제,특히 화급한 경제문제에대한 강조때문에 국제문제는 가려진것 같은 인상이었고 실제 대외적인 새로운 정책제시는없이 종래입장을 재삼 강조했다。

對蘇문제에 관해 레이건은 미국은 미·소 관계의 개선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과 소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변화를 보여야할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전략핵무기감축,유럽중거리미사일의 완전철거등 군축에관한 기존의 제의는 변화가없음을 설명했다。

45분간에 걸친 레이건의 연두교서는 이같이 국내적인 경제회복에 주안을 둔것이었고 연방지출,임금동결,국방비삭감,증세등은레이건이 붙인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잖게 국내외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즉각 미국이 지금필요로 하는것은 정치연설이아니라 회복의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의 금년도 정책방향을 담은「연두교서」를 뒤이어 발표했다。TV들은 모두 레이건의 연두교서에 뒤이어 잇달아 나온 이민주당측정책연설도 충실하게 중계했다。

레이건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방안에 초당적협조를 호소한점에도,그리고 그의 정책에서 다소의 융통성을 보인점에도 원인이 있긴하지만 레이건대통령은 45분간의 연설중 26번의 박수를 받았으며 특히 실업구제와 미국의 재건을강조한 부분에서는 모든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했다。

레이건은 지금 재임이래 가장심한 어려움을 받고있다。모든 대통령이 임기 3년째에서 고비를맞는것이 상례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인기도는 취임이래 가장밑바닥으로돼있다。

워싱턴·포스트지와 ABC방송이 25일 실시한 여론조사는 레이건의 대통령직수행에 대해 찬성,불찬성이 42대 54%로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때의 49대 44%와 대조를 보이고있으며 드디어 불찬성이 다수로 바뀐것으로 나타났다。이 원인은 무엇보다도 불황이 가장 큰것으로 돼있다。

레이건은 흔히 불황은 오랜 경제정책의 실패의영향이라고 카터시절의 민주당을 비난해왔고 이날도 강조한것은 인플레율 이자율의 저하,주택건설의 촉진등을 들면서 미국경제가 회복세에 있음을 지적한점이었다。

레이건에게 금년이 중요한것은 경제회복등 문제가 있어서이긴 하지만 1984년 재출마의문제를 결정해야하는 해이기때문이다。그러나 여론조사가들은 레이건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레이건이 아직도 강력한 지도자이며 지척이란는데 대해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정책상의 전환보다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있다。뉴욕·타임즈와 CBS공동여론조사는 레이건이 강력한 지도자인가라는 질문에 비록 81년도의 78%에서 줄기는 했지만 아직 53%가 그렇다고 나타난 것을 이 여론조사가는 지적하고 있다。

레이건대통령은 산적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그의정책방향을 고수해왔으며 이날의 연두교서에서도 그의 정책의 기본은 변하지않고 있음이 여러군데에 나타나고있다。그런 의미에서 그가 이날 보인 약간의 타협은 그로서는 최대한의것일 수있으며 결국 이의成敗가 재출마 여부에 그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메아리

第4海峽

金昌悅 〈編輯委員〉

일본의 對소戰略중에「海峽封鎖論」이란것이 있다。日·소간에 만일의 사태가 생기는 경우,일본주변의 해협을 봉쇄하여,소련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다는 것이다。

진작부터 있어 온이 戰略論과 관련하여,지금 일본에서는「4海峽」과「3海峽」이 말썽이다。발단은 미국을 방문한 나까소네 수상이「4海峽」봉쇄를 말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封鎖論은 사할린-北海道의 소야(宗谷=라·페루즈)、北海道-本州의 쓰가루(津輕)와、쓰시마(對馬島)등「3海峽」이 대상인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나까소네수상의「미국발언」은 당연한 의문을 부른다。나머지 제4해협은 어디인가。일본 사람도 그렇지만,우리네 짐작으로도 그 해답은 쓰시마-釜山의 大韓해협이다。

나까소네 수상의 미국발언은「4海峽」이 어디 어디인지를 밝히지않았다。귀국해서는「4海峽」의「4」를 착각이라고 부인했다。大韓해협이 封鎖論에서 빠져나간 인상이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의 간부는 수상의 誤言을 되받듯,쓰시마해협의 봉쇄는히가시·수이도(東水道)와 니시·수이도(西水道)를 모두 포함한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이 西水道가 바로 저들이 말하는 大韓해협이다。「4海峽」이든「3海峽」이든,釜山앞 領海밖은 봉쇄대상이된다는 설명이다。

잠시생각해도 방위청의 말이 당연하고 솔직하게들린다。大韓해협을 그냥둔 해협봉쇄란 대문을 반쯤만 잠그는 격이다。大韓해협을 뺀 海峽封鎖란 성립될수가 없는것이다。

그러면,어차피 大韓해협이 들어가는데,「4海峽」「3海峽」의 시비는 무엇인가。

이경우의말썽은 한·일두나라사이해협이 하나냐 둘이냐는 것 뿐이다。그래서 하찮은듯 하지만 짚어 둘 필요는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한국과 일본 두나라 사이에는 大韓과 쓰시마 두 해협이 있다。그와는 달리,두 나라 사이에는 쓰시마 해협하나에、東·西두 水道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사람이 있음은 앞의 방위청간부 말대로다。

외국 지도에도 조금은 엇갈림이있다。손 가까이 있는 하몬드版(美國)세계지도에는 코리아(大韓)와 쓰시마 두 해협이 한·일사이에 있다。더·타임즈(英國)의 세계지도에는 해협이 하나뿐이다。그 이름은 코리아。그러면서 괄호안 小文字로 쓰시마해협이라 쓰고 한쪽 水路는 히가시·수이도、또 한쪽은 니시·수이도로 英文표기해 놓았다。

이같은 혼란은 일본이 韓반도를 아울렀던 후유증이다。그때는 해협을 하나라해도 그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이제 버젓이 國際海峽으로 변모한 바다에는 그에 합당한 이름이 있어 마땅하다。만일 해협이 하나임을 고집하자면,국제간의 通稱대로 두 水路를합쳐 大韓해협이라 함직도한데,일본영토사이 水路의「大韓」은 좀 이상하다。양쪽水路의 성격이 달라졌으니 해협도 둘,이름도 둘이어야 옳다。일본사람들이 쓰시마해역의「히가시」「니시」하는 地理感覺은 옛것의 잔재나 같다。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한·일간 해협이하나,겐까이나따(玄海灘)가 있는듯한 착각이 남아있는 것이다。「玄海灘은 말이없다」고 할때 느끼는 일반적인 감각이다。

玄海灘은 北九州 후꾸오까(福岡)앞의 사나운 바다를 이름이다。우리쪽에서 가자면 쓰시마를 지난 일본의 內海같은 곳이다。그런것을 한·일 두나라 사이의 바다처럼 말함은,한때 우리나라를 오가며 여기를 지나던 일본사람들의 우울한 감회가 빚어낸 일종의 誇張이다。

이처럼 한·일 두나라 사이에는「빼앗긴 이름」「비뚤어진 이름」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東海는 숫제日本海로뒤바뀌었다。그한가운데 獨島를놓고는 마쓰시마(松島)니 다께시마(竹島)니 하는 시비를,지금도 일본사람들이 걸어온다。

이섬에서 좀 북상하면 더 오욕스런이름이 있다。야마또다이(大和堆)。소문난 오징어 어장이며 어선납북이 잦은 해역이라 신문에도 자주 나는이름인데、그 연원은 이 해역을 탐사했던 일본군함,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일본의 옛이름이요,美稱이다。우리 바다이름으로 남의 국명을 뇌는 꼴이니 해괴하지 않은가。이런것쯤 새이름을 생각할때가 됐음직도 하다。

다시 해협으로 돌아가서,일본의 海峽封鎖論은 大韓해협을 포함하는것이 당연한 귀결이다。그 경우 봉쇄대상은「3海峽」아닌「4海峽」이어야 옳다。그런 뜻에서,나까소네 수상의「4海峽」은「그것이 大韓해협을 염두에둔것이라면,국제적으로 통용되는 地理感覺에 합치한다。그것을 왜 부인했을까。

이것은 한·일安保관계나戰略論을떠나서하는 말이다。일본의 海峽封鎖論에서 눈을 뗄수는없지만,本論은 전문가에게 맡기고,거기 드러난「빼앗긴 이름」의 아픔에도 생각이 미치더라는 얘기다。

軍縮、어떻게 되나

잇달아 열릴「5개協商」診斷

美·蘇유로미사일협상 가장 큰 關心

妥結여부 2次大戰이래의 分水嶺

『핵군비경쟁은 끝맺음돼야하고 核戰의 위협도줄여야한다。물론 재래전발발의 위험도 감소시켜야 한다』바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인류의 평화의지를 시험하는 5개의 별개 軍縮협상이 앞으로 2주일 사이에 잇달아 재개된다。美·蘇협상대표들은 2개월간의 휴회끝에 유럽중거리핵미사일제한회담을 위해 27일 제네바에서 자리를 같이한다。같은날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국들이 말의 성찬뿐 겉돌기만 하다가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재래식군사력 감축협상을 재개한다。

2월들어서도 그간 중단되어버렸거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무기제한협상이 줄을 잇는다。2월1일에는 40개국군축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시발로 2일에는 美·蘇전략무기감축회담(START)의 후속협상이 시작된다。8일에는 35개국정부대표들이 마드리드에 모여 기습공격때사전경계방안을 모색키위한 유럽안보회의를 계속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재개되는 5개군축협상이 東西군축협상의 분수령을 이룰것으로 보고있다。

지난79년6월에 SALTⅡ(제2단계전략무기제한협정)가 조인되기에 이르렀지만,6년반의 그교섭기간중 美·蘇의 핵미사일은 MIRV(개별유도多發彈頭)化되었고 정확도도 크게 향상되어 80년대들어서면서 또다시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지고있다。게다가 美·蘇를 중심으로한 세계각국의 군비증강을 위한 군사비지출도 줄어들지 않고있다。다음세기가 오기전 매년9천억달러란는 엄청난 돈이 군비증강에 쓰여질것이라고 유엔군축 사무소는 전망하고있다。

특히 오는 연말의 시한에 쫓기는 유럽배치중거리핵무기제한협상에서 美·蘇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경우 미국의 신형미사일 西歐배치계획강행이 불가피한상황이다。유러미사일협상등 이번에 재개되는 일련의 군축협상들이 어떠한 타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채 결렬된다면 군사력우위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될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군사전문가들이 올해 유럽배치중거리핵무기제한협상타결여부가 2차대전이래 군비증대를 억제하려는 그간의 노력에 큰분수령을 이룰것으로 전망하고 있는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5개협상중 유럽배치 중거리핵무기 제한협상(INF)이가장긴급성을띠고있다。미국은이협상에서이른바「제로·옵션」(0의선택)」안을제시하고있다。소련이SS20 SS4 SS5등약6백기에 달하는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을 전면철거할경우 미국도 이의 대가로 금년말로 예정된5백72기의 美製크루즈(순항)및퍼싱Ⅱ의 서구배치계획을 취소할 용의가있다는 안이다。

이에반해 소련의案은 미국이 크루즈및 퍼싱Ⅱ미사일의 서구배치계획을 철회한다면,유럽배치SS20미사일을 현재의 2백40基에서 영국및프랑스보유미사일과 같은 수량인 1백62기로 감축한다는것이다。그러나 양측의 제의는 모두 상대측에의해 거부되었다。미국과 서구는▲영국과 프랑스의 무기는 독자적인것이며 미국의 통제하에있지않다▲소련미사일SS20은3개의 개별목표탄두를갖고있다。그런데 소련제의대로라면 결국 소련이 3대1의 군사적우위를 유지하게 된다는등의 이유로 소련의 제의를 거부했다。크렘린은 미국의 제로·옵션이 소련에대한 일방적 군축시도라고 지적,그것을 거부하고 기본적협상대상에서사실상배제해버렸다。

27일 재개되는 협상테이블에서도 미국은 영의선택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라고 폴·니치 협상수석대표는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소련측의 유리·크비친스키수석대표는 미국이제로·옵션을 포기해야 협상이 타결될수있을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미국이 이제안을 포기하면 유럽겨냥소련미사일을 1백62기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협상을 위해 제네바에 도착한 美협상수석대표는 협상타결을 위한『모든 가능성을 개발하겠다』고 밝혀다소 후퇴하는 입장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그러나 이처럼 이견이 팽팽히 맞서있는 한 결국회담은 당분간 교착상태를 면치 못할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朴炅銀기자】

◇再開될 軍縮 협상

회 담	참 가 국	개최일시	장 소
중거리핵무기제한회담	美·蘇	27일	제네바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나토·바르샤바조약기구회원국	27일	빈
군축위원회	美英蘇등40개국	2월1일	제네바
전략무기 감축협상	美·蘇	2일	제네바
유럽안보회의	東西歐 35개국	8일	마드리드

◇2차대전후 군축협정

- ▲1959·12·1 남극조약(남극에서 일체의 군사활동금지)
- ▲1963·8·3 부분핵실험금지조약(지하핵실험을 제외한 일체의 핵실험금지,美·英·蘇간협상,중공은조인하지않음)
- ▲1967·6·27 外界에 관한 조약(지구궤도에 핵무기배치금지)
- ▲1968·7·1 핵확산금지조약
- ▲1971·2·11 海床에관한조약(12마일영해밖 海床에 핵무기배치금지)
- ▲1972·4·10 세균무기에관한조약(세균무기의 개발과 비축금지)
- ▲1972·5·26 SALTⅠ과 탄도탄요격용미사일에 관한조약(미·소간전략무기동결과 對미사일체제제한)
- ▲1974·7·3 限界초과 핵실험금지조약(미·소,지하핵실험도150kt이하만하도록제한)
- ▲1979·6·18 SALTⅡ (미·소,전략미사일·폭격기보유상한규정 미상원에서 비준안됨)

◇27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美·蘇유럽 배치중거리미사일 감축협상의 美國측수석대표인 폴·니치씨(左)가 브뤼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본부에서 盟邦대표들에게 제네바협상의 진전상황을 설명하는도중 윌리엄·허들레이·베니트美나토대사와 담소하고있다。【브뤼셀25일AP電送=聯合】

◇法廷 들어서는 다나까

록히드 뇌물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될 처지에 놓여있는 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榮) 前日本首相이 26일 상오 東京지방법원에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고있다。【東京26日AP電=聯合】

TV들 出廷현장 헬機동원 실황보도

懲役5년 求刑되자 예상한듯 고개끄덕

관심끈 다나까 公判現場

6년동안 끌어왔던 록히드사건에 관련된 다나까전수상(64)에 대한 구형공판이 26일 일본 정계는 물론 일본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東京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검찰측은 이날 상오10시부터 개정된 재판정에서 전문 5백페이지 30만자에 이르는 다나까前수상에 대한 범죄사실 논고를 5시간반에 걸쳐 4사람의 검사가 번갈아가며 읽어내려 갔다。

다나까피고는 눈을 감고 검사의 추상같은 논고를 듣고 있었으나 5억엔을 록히드社로부터 마루베니사를 통해 트라이스터비행기도입을 全日航에 알선해준다는 조건으로 수회했다는 사실을 증거를대가면서 예시하자 눈을지그시 감은채 이따금 신음소리를 냈다。다나까전수상은 장시간에 걸친 논고를 마친뒤 검사가 징역5년、추징금5억엔이라고 형량을 구형하자 이미 예상이라도한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날의 다나까 전수상에 대한 구형공판은 東京지방재판소에서 제일큰 법정인 701호실에서 열렸는데 52명의 방청권을 얻기위해 이른 새벽부터 1천2백여명의 신청자가 몰려드는바람에 큰혼잡을빚기도했다。

NHK를 비롯한 6개의 주요 TV방송은 다나까전수상이 메지로(目白)에있는 자택에서 지방재판소에 출정하기위해 5㎞에 이르는 출정현장을 헬리콥터를 동원해 실황보도를 했으며 재판정에서의 검사논고를 수시로 특별보도했다。

佛여인 세번出産에 6男妹

처음1명 두번째2명 세번째3명

프랑스동북부 메스시에 사는 23세의 한 여인은 지난6년동안 등차수열로 아이를낳아 세번 出産에 6명의 식구가 늘었다고。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여인은 6년전 실비라는 아이를 낳았고 4년6개월전에는 제롬과 소피라는 쌍둥이를,그리고 지난주말에는 캐롤린·신디·비르지니라는 세쌍둥이를 차례로 낳았다는것。【메스=AP】

6쌍둥이 順産도

★이라크女人 모두男兒

36세의 이라크여인이 25일 6쌍둥이(모두남아)를 순산했다고 이라크 INA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마크불라·아메드라고하는 산모와 체중이 2·7㎏씩인 6쌍둥이는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이 여인은 군인인 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4자녀를 두고있다。【바그다드=UPI】

술 1ℓ에 9만원

★이탈리아 국경산악마을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그라파·피콜리트」란 술은 가격이 1ℓ당1백20달러(약9만원)를 호가,세계에서 가장 비싼술이라고。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북동부의 산악국경마을에서 생산되는 이술은 이곳에서 재배되는 정선된 포도를 원료로하여 세심한 양조기법을 통해 제조되며 호화스런 선전과 함께 제한된 생산으로 인한 희귀성때문에 그같이 비싼 값으로 판매된다는것。【우디네=안사】

海外토픽

레이건支持率40%

★美2개 여론조사서 밝혀

레이건美대통령의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민중 40%만이 레이건대통령의 직무수행방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2개의 여론조사결과가 24일밤 공개됐다。

美CBS방송-뉴욕·타임즈紙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1%가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수행방법을 지지하고 47%는 반대했으며 그의 인기도 지난82년에 비해 8%가 하락했다。

또 美ABC방송-워싱턴·포스트紙조사결과도 42%가 레이건대통령의 직무수행방법을 지지한 반면 54%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聯合】

2만㎞ 자전거旅行

★62세中共老人 10개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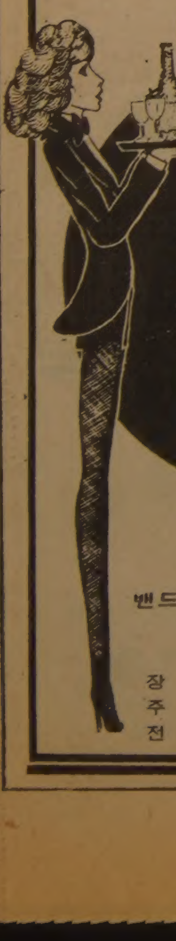
62세나된 中共의 한노인이 10개월동안 2만8천㎞의 자전거여행으로 中共대륙을 누볐다고。

中共의 新華社통신은 25일 中共동남부 南昌出身의 가오·송윈이란 이 노인이 新疆지방·티베트·臺灣을 제외한 중국전역을 자전거로 여행했다고 보도。

이통신은 또 이노인의 신체가 채석장에서 일할때 잘단련됐기때문에中共北部寧夏지방의 사막지대를 짐을등에 진채수㎞나걸어갈수있을정도로건강했다고。【北京=外信】

◇올 봄·여름패션

프랑스의 디자이너 장루이·세러씨가 83년 봄·여름패션 컬렉션에 내놓은 작품。넓은 X자형의 옷깃,크고 각진 어깨부분,그리고 타이트하게 벨트로 졸라맨 허리선등에 현재의 패션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파리25일UPI電=聯合】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しょうこそば

日本式 우동집 Phone: 465-4482

월·화: 휴업(CLOSED)
수·목: 12시-2시30분 6시-9시
금: 12시-2시30분 6시-10시
토: 12시-10시
일: 5시-9시

1391 Danforth Ave., Tor. (Greenwood와 Coxwell 사이)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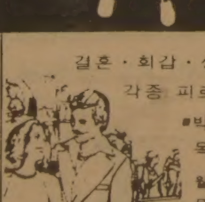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59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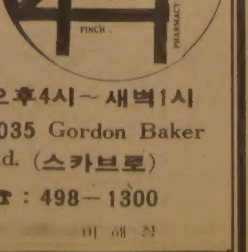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마쵸레스토랑

신장개업

◻주류일체 취급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넓은 파킹장 교통 편리



◻영업시간: 오후4시~새벽1시
◻주 소: 4035 Gordon Baker Rd. (스카브로)
☎: 498-1300

카세트 테이프 "洪水"

中高生학습용… 粗惡品많다

내용·音質나빠 오히려 "有害"

市中에 百여종、審議도 형식적

高校用 1세트 85만원까지

중·고교생 상대의 학습교재용 카세트테이프가나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것까지는 좋겠지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개중에는 「조잡품」도 적지않아 이를 카세트공세에 잘못휘말리면 오히려 「공부」를 망치게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중·고교생들의 학습용 카세트테이프가 시중에 범람하고있다。 그러나 일부교재는 내용이 부실한데다 음질마저 조잡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된다。

영어등 일부 외국어 과목에 국한됐던 학습보조용 카세트 테이프가 과외가 전면금지되고 학교에서 특별보충수업마저 하지못하게되자 우후죽순격으로 크게 범람하게 된것。

26일 현재 문교부집계에따르면 각종학습용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판매하고있는 회사는 방송국을 포함, 27개업소。

또 시중 각종서점과 카세트전문판매점에 나와있는 테이프는 10여개회사에 종류만도 1백여종을 넘고있는데영어가 13종、수학이 10종、국어가 6종류나 된다。

일부회사에서는 영어、수학뿐만아니라 고교 28개전과목을 수록한 테이프를 세트로 만들어 1년전부터 시판까지 하고있으며 값도 비싸 이과반용이 85만원, 문과반용이 68만원이다。

이중 일부 테이프는 내용이나 편집이 충실해 학습에 큰도움을 주고 있으나 일부제품은 내용은 물론 테이프의 품질마저 조악품이다。

이처럼 불량, 조악테이프가 나돌게된것은 지난 81년12월까지만해도 심의, 검사필증을 발급하던 문교부가『업자농간에 놀아날 위험이있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손을뗐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현재 이들 학습용카세트테이프는 일반가요를 심의하는 공연윤리위원회에 맡겨 형식적심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수업만으로는 공부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투어 이 엄청나게비싼 카세트테이프를 구입하고있다。

일부회사에서는 값이 너무 비싸자 월부또는 할부판매를 통해 강매까지 하는실정。

카세트테이프교재는 일반참고서보다 10배이상의 고가인점이 특징。 S社의 테이프6개로된 중1영어교재가 1만8천원으로 참고서의 꼭10배가되며 H社의 테이프24개들이 고문(古文) 교재가 7만7천원으로 같은종류의 참고서값에비해 무려 20여배나 된다。

고교과정 4개과목을 시판중인 H社의것은 테이프1백56개에 49만8천원으로 테이프한개에 3천3백원꼴。

그러나 카세트테이프 교재를 찾는 학생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방문판매를 주로하는 N社의 경우 올 매출액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 『손이 달릴 정도로 잘 팔린다』는게 회사측의 주장이다。 H社도 인기리에 카세트테이프교재를 팔고있는데 방학기간중엔 수요가 30%정도 늘어났다는 것。

교보문고의 카세트코너에도 참고서코너와 마찬가지로 중고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교보문고측에 의하면 매일 50여명이 몰려, 이중 반수정도가 카세트교재를 사간다는것。 鍾路서적 吳福吉계장은 『겨울방학에 접어들면서 카세트교재를 찾는학생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전하고 하루평균 20여명꼴로 이 교재를 사간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우편으로 구입요청을 해오고있고 일부지방학교에서도 교사의 학습교재나 도서실 비치용으로 사가기도한다。

문제는 비싼가격에비해 내용이 부실, 소기의 학습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데있다。 군소메이커의제품들은교재내용은 물론 테이프의 음질조차 조잡한 것이 많다。

교보문고측에 의하면 테이프가 늘어져있거나 잡음이있고 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공테이프가 있어 하루에 2~3명이 반품해온다는것。 그러나 N社의 간부 林모씨는 『학원에서 1백60분간 강의하는 내용을 60분짜리테이프에 담아 효율면에서 참고서6번읽는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수 있다』며 『자율학습용으로는 카세트테이프를 능가할 교재가 없다』고 주장한다。

외국어카세트테이프는 이들 메이커의 주장처럼 상당한 효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지만 기타과목에 대해선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Y여고3학년담임교사 金모씨(34·여)는 한마디로 『권장할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추천의뢰를 받고 테이프를 들어본 金씨는 『설명이 빈약하고 템포가 느려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었다』며 『일부 과목은 테이프를 채우기위해 진부한 설명을 늘어놓는가하면 공백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淸溪中3년 金洙哲군(16)도 방학에 접어들면서 S社의 수학카세트테이프를 구입 사용했으나 참고서를 보는것보다 나은점이없어 테이프강의내용을지우고 대신 팝송을 녹음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H商의 金모교사(42)도 카세트교재를 구입한 학생들이 처음엔 열심히 이용하다 나중엔 흥미를 잃고 팝송녹음용으로 사용한다고전했다。

이에대해 한국교육 개발원 방송부장 金亨立씨(교육공학박사)는 『내용이 충실하다면 학습보조자료로서 효과가 있겠지만 참고서의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 시중의 카세트테이프교재는 지식주입외에 문제해결력、창의력、탐구력、지구력등을 길러줄수없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기계적인 안이한 문제풀이방법을 버리고 스스로 학습방법을 해결하고 이해하는 방법을키워나가야할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교육전문가들은 카세트테이프교재가 학습보조자료로서 효과를 줄수도 있지만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일방적인 강의와 암기일변도에서 자율적이고 탐구적인 학습 습관을 길러주지 못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方政俊기자】

"陷穽수사로 저질러진 犯行도 犯意있었으면 有罪"

서울高法 판결、祝儀金절도犯에 實刑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金永鎭부장판사)는 26일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된 柳三烈(42)、徐永珏(48)、明在根(41)피고인등 3명에대한 절도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함정수사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졌다해도 범행의사(犯意)를가진상태에서 범행이 유도된것이라면 무죄가 될수없다』고 밝히고 이들의 항소를기각、원심대로 柳·徐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明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柳피고인등은 지난해 3월27일 서울銅雀區上道1洞南峴교회에서 許모씨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에 접근, 『돈을 낸 사람이름을 추가로 적어 넣겠다』며 1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받아 이름을 적는체하며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과거에 축의금 절도를 함께 했던 경찰정보원 金모씨가 도범검거기간중 체포되자 담당형사에게 『자신을 석방시켜주면 검거실적을 올려주겠다』고 제의한뒤 풀려나 자신들에게 범행을 제안, 결국 경찰정보원이 꾸민 함정수사에 걸려 범행이 저질러진 것이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정보원 金씨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도하긴했지만 전혀 범의가없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케한것은 아니다』면서 『함정수사를 이유로 무죄주장을하려면 전혀 범의가없는 상태에서 함정수사로 범행이유발된 경우여야한다』고 항소사유를 밝혔다。

琴湖호텔사장 起訴

【大邱】대구지검 형사3부 鄭상임부장검사는 26일 금호호텔화재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및 소방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호텔대표 金英基씨(47)와 영선과장 張萬金씨(32)를 기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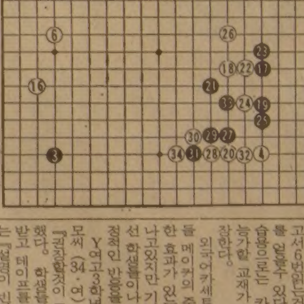
한편 鄭부장검사는 이날방화범 朴長壽씨를 오는2월15일까지 20일간 경북대학교의대부속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키위해 대구지법에 정신감정유치청구를 냈다。 【鄭】

趙名人、초반 세력확보작전

棋聖戰 제2局

【東京=朴泰林특파원】 제7기 棋聖戰도전 7번기중 제2국이 26일 나가사끼市 淸風호텔에서 후지사와(藤澤秀行·58) 棋聖과 도전자 趙治勳名人(26) 간에 열렸다。 趙名人의 집흑으로 진행된이날 대국은 하오 3시55분 불과 35수만에 봉수됐다。 규정보다 1시간5분이나 빨리봉수한셈인데 이 1시간을 나누어 양측의 소비시간에 합산하게돼있어 참고파인 趙名人이 불리할 가능성이있다。

이 봉수는 입회기사와 대국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연장자인데다 타이틀을 쥐고있는 후지사와棋聖의 의향에 趙名人이 따라간것으로 볼수있다。



◇제7기 棋聖戰 7번승부 제2국(1~34)
▲黑 도전자 趙治勳 名人(1패)
▲白 棋聖 藤澤秀行9단(1승)
〈第5지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趙治勳후원회 事務局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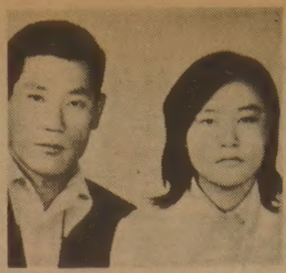
모계中高校 불 教室17개 전소

【大邱】26일 새벽 2시10분께 경북清道郡華陽邑凡谷洞 모계중고교에서 불이나 2시간동안 본관2층건물 교실17칸(연건평5백78평)을 모두 태워 8천여만원의 피해를 냈다。 【鄭】

前妻도 9년째 행방불명

變態사진狂、「또다른 殺人」가능성

수첩에적힌 사진모델數名도 所在몰라



◇촬영 살인범 李東植(42)과 동거하다가74년 행방을 알수없는方玉守씨(31)。

여자면도사촬영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南部경찰서는 26일 범인李東植씨(42·서울江東區可樂洞可樂아파트77동406호)가 전처 方玉守씨(31)와 다른사진모델 수명도 같은방법으로 살해했을가능성이 큰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경찰이 이같이 보는이유는 ▲李씨의 수첩에서 金진敬姬씨외에 전화번호만 기재돼있거나 성(姓)만 적혀있는등 자신만이 알수있는 암호와함께 여자이름등 10여개가 발견됐는데 수사결과 사진모델이고 상당수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은 李씨가 전부인 方씨에게도 섬도착행위를 일삼았고▲方씨가 지난74년2월초 동거중 행방불명된후 지금까지 9년동안이나 소식이없는점▲지난22일부터 경찰이 方씨및 수첩에기재된 전화번호와 여자이름을 추궁하자 식사를거부하고 있는점등을들어 다른범행에대한 심증을 굳히고 있다는것이다。

경찰에의하면 이사건이 보도되자 지난22일 方씨의 둘째오빠(49·회사원·서울東大門區新設洞)등 가족들이 『李씨가 동거중 동생을 끈으로 손발을 묶은뒤 허리띠로 때려 사진을 찍는등 괴롭혀왔는데 모성애가 강했던 동생이 李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10)을 남겨둔채 9년동안 소식이 없는점으로 미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해옴에따라 方씨의 주민등록번호(520423-2008914)를 컴퓨터에 조회했으나 컴퓨터에 수록조차 되지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것。

方씨는 서울S여중을 졸업한뒤 오빠 在一씨집에서 가사를 돌보던중 지난72년5월 李씨를만나 4개월후부터 동거를 시작, 73년3월 딸을낳은뒤 같은해4월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갈수록 몸이 수척해져 몸무게가 55kg에서 40kg으로줄고 상처투성이었으며 『남편이 밤마다 전신을때리면서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해 무섭다』고 말했었다는것。

李씨는 지난74년8월 方씨의 오빠 在一씨를찾아가 方씨가 일본옷을 입고 찍은 사진과 볼링장에서 찍은 컬러사진등 2장을 보여주며 『동생이 6개월전 가출했는데 「부산에서 새생활을하고 있다」는 편지가왔다』면서 편지는보이지 않은채 이혼을해달라고 요구했었다는것。

세어린이 被殺사건

現金도난 밝혀져

피묻은 마스크도 발견

【釜山】부산影島세어린이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하오 사건현장에대한 정밀재수사에서 범인이 방안의 저금통과 여자용 손지갑속에서 현금2만9천원을털어 달아났다는 새로운사실과 피묻은 장갑이발견된 입구2층집 지붕에서 범인이버린 피묻은 흰색마스크1개를 발견, 면식범에의한 우발적인 강도사건으로단정,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의진전이없었으나 이날 사건현장에대한 정밀감정을 다시편결과 화장대위에있던 어린이들의 저금통이 칼로 찢어진채 그안에 들었던 현금 1만4천원이없어졌으며 전축위에 놓여있던 여자용가방안 소형 손지갑속에있던 현금 1만5천원(1만원권1장, 5천원권1장)도 없어진 사실을 밝혀냈다。 【鄭】

女裝남자 호스티스 3명검거 即審넘겨

고용한業主 2명도

◇경찰의 기습단속으로 鍾路경찰서에 연행된 女裝호스티스들。 원피스차림에 짙은 립술화장、가발을쓴 모습은 누가봐도 여자이다。

서울鍾路경찰서는 25일밤 女裝호스티스를 고용、변태영업을 해온 鍾路區益善洞93 초대(招待) 경양식 주인 李容郁씨(34)와 李씨 집에서 여장을하고 접객행위를 하던 李在功(24)、許長國(30)、金漢福씨(20)등 4명을 붙잡아 경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서울中部경찰서는 26일 여장남자호스티스를 두고 퇴폐영업을해온 서울中區草洞10의3 「카페18번」주인 李봉우씨(45·中區會賢洞3街9의13)를 경범죄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즉결에넘겼다。

李씨는 지난해 4월부터 게이바형식의 술집을 차린후 12월부터 남자호스티스 7명에게 여장을시켜 퇴폐적인접객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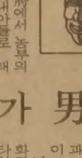
女裝남자 호스티스 「미스J」

女性혐오가 男性사랑 慾求로

방년 21세의 「미스J」(男·서울中區仁峴洞)는 요즘 화제가 한창인 「女裝남자」호스티스다。 그녀아닌 그의 생활은 여느 여자호스티스와 다를바가 없다。 낮에는 손님이 없는 텅빈 지하실홀에서 노래와 춤을 배우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거울앞에 앉아 얼굴을 매만진다。 속눈썹을 달고 마스카라와 아이섀도를 한다。 루즈빛깔도 빨갛다。

화장하는 시간만은 제일 행복한 자신만의 세계。 새로운 밤에 대한 기대로 「女心」아닌 「女心」이지만 설레기만 한다。 화장이 끝나면옷을 고른다。

오늘입고 싶은 옷은 빨간색 드레스。



「미스J」는 議政府에서 농부의 7남매중 귀염둥이 막내아들로 태어나 오빠와 언니들의 사랑속에 자랐다。 남달리 예쁜용모와 고운목소리 때문인지 어렸을적부터 어머니는 치마를 즐겨 입혔고 철없던 시절에는 일부러 여자흉내도 많이 내었다。 그러다가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자신도 알 수없는 심경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여성적인 행동과 차림에 대한 경멸이 싹텄던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여성적기질에 대한 증오감의 발로라는 것을 깨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는 않았다。 여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는 이내 남성을 사랑하고싶다는 내적욕망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율배반 이랄까。

남성의 사랑을 구하기위한 여성으로서의 탈바꿈을 의미한다는것도 이어 느낄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후 그는 게이(gay)가 되어가고 있었다。 돈이 필요해 2개월전 같은 세계속에있는 친구의 소개로 게이바인 서울의 모술집에 들어갔다。 주인을 「마마」라 부르고 고참호스티스를 「언니」라 부르면서 손님을 즐겁게하기위해 노래와 춤을 익혔다。 1백65cm의 아담한 키에 36―25―36의 극히 여성같은 몸매에 많은 단골들이 모였다。 여자호스티스들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주는 팁으로 살아가지만 하루한번의 미장원과 목욕탕출입、옷과 장신구값으로 써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낮에 시내에 나갈땐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우지만 차림새는 여자스타일。 길가에서 유혹하는 남성들도 더러있다。

자신이 「게이」지만 「게이손님」은 싫다고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회의눈엔 경멸이 깔려있어요。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나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후회한적은 없어요。 난 잘못길들여진게 아니고 잘못 태어난거니까요」

기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자리를 뜨는 「미스J」가 바라는 것은 「좋은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 했다。 좋은 남자를 뜻함이었다。

「세상 살기 점점 험해지누나」― 기자는 그날 몹시 울적했다。 【韓基泰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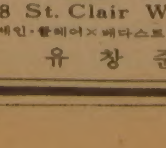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061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진실…
454 BLOOR ST. W.
536-1692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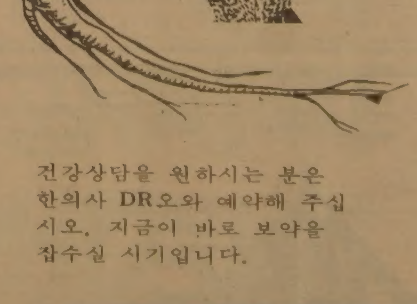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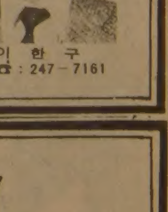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배더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行材藥華中大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Grant Brown
■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합.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r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섬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램톤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완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1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전기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가모토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저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Grade 7에 재학중인 성적좋은 학생임. 높은 Level의 영어, 수학 가르쳐 주실분 구함. 스카브로 지역.
전화 : (B)921-4466, (R)291-0117 Mr. 신

시외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 1-(705)-458-4326

도넛숍 카운더 헬퍼 구함.
(1)밤12시~아침8시 (2)주말 아침8시~오후4시
전화: (B)690-3920, (R)491-8734 Mr. 김

급구: ◉도넛츠공장 맡아서 운영하실분
(판로가 있음)
◉도넛츠 숍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Weston 지역과 Finch 지역)
◉도넛츠 숍 메니저 구함.
전화 : 665-0790(낮) 731-1641(저녁) Mr. 최

입주하셔서 애기 돌봐주실분
(Markham & Sheppard)
전화 : 284-3031 Mrs. 성

Kitchen Helper 구함.
5304 Yonge St.(영 남쪽, Finch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오후4시 이후), 826-7676(오후6시 이후)

한국요리사, 웨이트레스 구합니다.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Restaurant Kogil Kwan
한식요리사 1명, 일식요리사 1명, 중식요리사 1명. 10년이상 경력및 자격증 요함. 전화 : 532-7421 Mr. or Mrs. 장

햄버거숍에서 파트타임 오전중에 일하실분.
오전 11시~오후 3시
전화 : 447-1460 (오후 3시 이후)

용모 단정하고 영어에 불편이 없으신분 구함.
Eaton Centre안(직접 내방원함) 1층 분수대옆
SWENSEN'S ICE CREAM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광고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효과있고 신속한 광고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광고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든지 저의 광고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협조해 드리겠읍니다.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오후 5시반)
토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가게 급매.
리스: 3년+옵션. 아스킹: $8,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Ralf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389-9755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 매매
아스킹: $20,000+스탁 주매상: $2,500~$3,000
전화: 1-561-1911 Mr. 정(저녁7시 이후)

◉주매상: 약 1만불의 도넛숍.
권리금: 33만불. 리스: 26년
◉주매상: 약 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3만9천.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가능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636-169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 - 해밀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5년+5년
전화 : 498-5242(토론토)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1)Drive in Restaurant 매매(•4년된 독립빌딩과 비즈네스)
◉$75,000 down, $100,000 주인이 모게지 잡음.
◉좌석44, 주류허가, 45대이상의 주차장. ◉대지1에이커는 6년간 리스가 있고, 전물확장·신축·비즈네스 전환도 가능함. (2)버라이어티 년평균 주매상: $5,500 렌트: $800
Royal Trust 곽 석 용(전화: 752-3111)

다이아몬드·반지 4부 VS. H. Color
Appraised $1,900 Sale가격: $950 ◉Band(가락지)와 한쌍
전화: 767-1702 박(오후6시 이후)

Health & Bulk Food 가게매매(Dry Fruit, Nuts, Tea, Coffee, Candy, Chocolet) ★짧은시간·좋은이익.
전화: 783-646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Tuck Shop 급매. 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6시

◉아이스크림 커피숍: 바쁜 Indoor Mall. 일요일 닫음. 리스 9년. 권리금: 7만 9천 ◉가게와 건물: 1)토론토 서쪽60마일. 주매상: 6천+티켓. 2Bed Rm.아파트 3개. 가격: 19만불. 2)주매상: 5천5백. 짧은 영업시간. 가격: 19만불 ◉코리아타운 투자용건물: 40만불 다운페이. 가격: 89만9천.
(황용현부동산) Call 임윤식(Tony) 449-8644 (B). 636-7950(R)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1Bed Rm. 방세 놓습니다.(부엌 포함)
월: $200.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Mr. 김) 오후1시~밤10시사이 전화 요.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York Downs Florist) -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총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대환부동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한칼라현상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ㅇ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ㅇ아늑하고 조용 —— 바아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